

2017년 12월 20일, 대정읍 신도1리 신도1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김태병(여, 1934년생, 대정읍 신도1리)

제보자2: 허공선(여, 1935년생, 대정읍 신도1리)

- 줄거리: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는데, 콩쥐는 첫째 부인의 딸이고 팥쥐는 계모가 데려온 딸이었다. 계모는 콩쥐를 심하게 구박을 하였다. 하루는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자 계모는 콩쥐에게 밑동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, 벼 닷 말을 깐 뒤에 잔칫집에 오라고 한다. 콩쥐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해도 물이 차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항아리의 밑동이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. 벼 닷 말을 언제 다 깔지 한탄을 하던 콩쥐 앞에 새들이 나타나서 벼를 모두 골라내어 준다. 잔칫집에 도착한 콩쥐를 보고 놀란 계모가 시킨 일을 다 하였냐고 묻자, 항아리는 밑동이 깨져서 애초부터 물은 채울 수 없었고 쌀은 모두 깰다고 대답했다. 마침 사또가 신발을 내놓으면서 신발이 발에 맞은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다. 계모와 팥쥐가 신발을 신으려 노력하였지만 맞지 않았고 콩쥐가 신으니 꼭 맞았다. 그 후 콩쥐는 사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고 계모와 팥쥐는 아무 호사도 누릴 수 없었다.

[조사자] 콩데기 끗데기 얘기는 어떻 헙디가?

[제보자2] 다슴애기는 콩죽만 썽 맥이곡 자기 난 뜰은 끗이 막 맛이 잇지. 맛잇이난 그 것만 써 주곡. 헨 보난 그것이.

[제보자1] 반대로 뒤엿지게.

[제보자2] 반대로 뒤엿지. 콩 맥인 아덜은 막 곱고 막 미남이 뒤곡. 끗만 먹은 건 빈뎅이 가 퍼싹퍼싹 벗어정 뒤싸지고.

[조사자] 경 헷덴 헙디가?

[제보자2] 응.

[제보자1] 게난 그 콩쥐팥쥐난. 콩쥐는 큰뜰이고 팥쥐는 이녁 난 족은뜰이난. 끗만 막 맥이난 빈뎅이 막 궂곡 헤여도. 막 다심어멍이니까 다심태 헤연 그 콩쥐를 경 궂인 체 헤연. 이제 어디 잔칫집인가 어딘가 잇이난.

“낼랑 항에 물을 ?득여둬그네 우리 뒤에 오민 우린 먼저 가 시肯.”

헤연 팥쥐뜰이영 잔치 먹으레 가 부난. 콩쥐는 물을 지어당 비와 봐도 항은 아이 ?득고, 기영 허거든. 이젠 누게가

“굽언 보라, 굽언 보라.”

헨 굽언 보난 굽으로 터진 항이난, 못 허게게. 그 지장눌은
“이 지장 이제 닷 말 다 까그네, 쓸로 해된 오렌.”
허난 그걸 어떻 까렌 허난, 그 죽어분 어멍 혼정이 잇인고라. 새덜이 오라 그
자 막 명석?뜬 디 앗이민
“아이고, 이 새덜 이거 문딱 먹어불민 나 다심어멍신디 죽넨.”
막 헨 파르릉 허게 놀민 첸 푸르링 놀아 불곡. 그 새는 또시 돌아오곡.

[제보자2] 옛날은 그 계모가 그렇게 나빴.

[제보자1] 계모가 경 나빴. 경 허난 이젠 그 콩쥐는 물항은 못 ?득이고 쓸은 지장은 다
깐 새덜이 다 까주난 다 깃거든. 다 깐 이젠 어딘가 이젠 어멍네 간 딜 촛양 갓
이난 이젠 어멍넨, 어멍은

“어떻 헨 이걸 깎아 오랏인고.”

허난

“물은 어떻 헨 ?득이고 쓸은 어떻 헨 깃이넨.”

허난 이제

“물은 질어다 놓단 보난 굽으로 항이 터져 불언 못 허고 쓸은 다 깐 오랏우겐.”

허난 그 어디서 어디 사돈가 어떤 사름이 이젠 신을 이젠 저 내여 노멍

“이 신에 발에 맞은 사름이 이제 뭣 허肯.”

허난 그 어멍은

“나 발에 맞았직Zen.”

신으난 꼬딱 아이 맞아. 풋데기도 신으난 꼬딱 안 혀. 콩쥔 신으난 그 신을
꼭 맞으니까, 그 사또가 이젠

“이 신발에 맞은 사름을 나가 데려가肯.”

헨 경 헨 콩쥐는 그 사름이영 간 잘살곡. 풋쥐허고 다심어멍은 아무 것도 안
뒈엿지.

- 핵심어: 콩데기, 풋데기, 다슴애기(의붓자식), 다심어멍(의붓어머니), 다심태(차별), 잔칫집,
항(항아리), 지장눌(기장가리), 새, 사또, 신발, 계모